

영적 성장의 아버지 진젠도르프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 1. 25 -

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케리나 감리교의 창시자요 영국 복음주의 신앙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에게 가장 큰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7세기경에 당시 오스트리아제국의 모라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써 희랍을 통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급속히 그들의 민족사이에 복음이 확대되었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1415년에 복음전도자 존 허스가 구교에 의해 화형을 당한 사건 이후에 이들에게도 혹심한 종교탄압이 주어져서 모두가 고향을 떠나 유럽의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무리가 1722년에 지금의 독일에 있는 헤른허트에 정착하게 되어 이 지방의 영주인 진젠돌프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에 힘입어 근세 선교를 개척한 선교 공동체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운 진젠돌프는 리더로써 다음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진 자로서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고, 또 가득 채웠으며, 죄인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위하여 자신도 생명을 다 하여 살아갈 것을 결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랑하는 모라비아의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도 바로 이 사랑이 그 동기였으며, 그가 의지한 유일한 능력은 이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향한 유일한 목표도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가르침이나 강론이나 규율로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모두가 배우기를 원했고, 스스로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인의 증인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버리고 이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사림의 공동체인 코이노니아에 대한 강렬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도가 사랑을 만끽하고 또 자라게 하며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 이 욕구는 가르침이나 격려만으로 채워 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귄 수 있으며 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영지에 정착한 300여명의 모라비아인 성도들을 그는 이 사랑으로 5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고 또 이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을 노예로 팔려나가면서 까지도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된 기적의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 타고 있는 선교의 불을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의 주변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된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영향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진젠돌프의 일생이 남긴 열매는 모라비안 선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성은 세상에는 기류자요 이방인으로 살다간 선교사들로써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종으로 불리움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일마다 때 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간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일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명을 쫓아 땅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